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도 잘되고 좋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좋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절대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안합니다. 어떤 것에 처했을 때 자꾸 안 된다 생각하면 불안하고, 자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면 생각으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으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꼭 기도는 절대적으로 생활입니다.

생활이란 무엇과 같은가 하니 극적으로 말하면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을 안 쉬면 오래 못가지 않습니다. 호흡을, 숨을 쉬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극적인 표현과 같이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안하면 기도를 하라! 기도하면 운명도 바뀌니까.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에 회박하면 안 됩니다.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화! 늘 대화를 하라! 간구하라! 애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해 줍니다.

선생님에게도 뭘 해 달라고 해야 줍니다. “해 줄 것을 믿고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활화입니다.

“무엇을 이래서이래서 꼭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약합니다.

환경이 되는 대로 팔려 가다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니,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사귀처럼 물결치는 대로, 계곡의 물이 흐르는 대로 쭉서 박혔다 또 올라왔다 뱅뱅 돌았다 하며 물이 가는 대로 따라 가게 됩니다. 나뭇잎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집니다.

생활에 흘러가는 인생들은 환경 따라 그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물결가는 대로 안 갑니다. 물결은 저쪽 동으로 가도 배는 사람이 조종을 하니까 물결 따라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흐르는 대로 가집시다. 이리 가지고, 저리로 가지고, 환경 따라 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고, 주가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자꾸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한 두 번해서 안 되면 10번, 10번 해도 안 되면 100번, 100번 해도 안 되면 1000번, 1000번 해도 안 되면 10000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성>이 없습니다.

<도전>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해 보고 또 해 보고!
도전에 약합니다.

선생님은 도전하는 것을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나무도 큰 나무를 벨 때는 한 번 싹 잡아당기면 많이 쓰러져 봤자 5mm가 끊어집니다. 그 것을 100번, 200번 하면 큰 나무도 결국은 넘어갑니다.

큰 나무를 톱 안 가지고 100m에서 총으로도 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총을 쏘면 넘어집니다. 계속 총을 맞으니까요. 계속 좌측으로 쏘고, 우측으로 쏘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서 도전하는 것을 배웠는가 하니,
물새가 강 언덕 절벽을 기어 올라갈 때, 높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7-8번을 하는 것을 보고 ‘7전 8기로구나. 나도 한두 번 해서 안 되겠구나.’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해서 안 되면 ‘뜻이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실력껏 해 봅니다. 내게는 실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그 실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 놓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시 돌려놓는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고 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신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어이 끝까지 하는 것!

내가 국민학교 때 토끼 쫓아가서 기어코 잡아오고, 밤새도록 나무 베어서 끊어 갖고 오고! 도전성이 있습니다! 도전할 때 스틸이 있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현대의 젊은이들은 도전성이 약합니다.

마음은 좋은 것을 원하고, 몸은 편하려고 하는데 도전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신앙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서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흘러갈 때 얼마큼 도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성사시킬 때도 그저 다섯 여섯 번, 열 번 같은 것은 숫자에 치지도 않습니다.

전셋집을 얻을 때도 나는 보통 막 50집, 100집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번에 방 얻으러 돌아다닐 때는 한 50군데는 돌아다녀야겠다.’ 아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집 갖고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도 제일 좋은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다 보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힘이 약하면 조금 하다가 맴니다. 강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또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도, 여섯 살 때 누가 멋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내가 돈도 안 주었는데, 그냥 달라고 하니까 줘니까? 안 주지요.

그런데 일주일을 쫓아다니니까 포기해 버리고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울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를 15살인가 더 먹은 사람인데 울어버리면서 주더라고요. “너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울었다고 우리 어머니께 혼났습니다. 나이 먹어서 커다란 것이 울었다고.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께 나에게서 뺏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주나, 안 주지요. 우리 어머니께 와서 “저것 좀 뺏어 주세요. 한 3일만 놀다가 주겠다고 가져가고는 안 줘니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재는 한번 가지고 가면 안 준다. 손이 끊어져도 안 놓는다.” 그러니까 개가 울고 갔습니다.

이름은 김성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 쓰고서도 안 갖다 줬습니다. 갖다 버려 버렸습니다. “너는 바보처럼 뺏겼으니까 주지를 않는다.”

도전성이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성경도 도전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썼다고 “병신들 글 쓸 줄도 모르네. 바로 쓰지. 이해 빨리 하게 쓰지.”

그래서 땅을 파고 산에다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에이, 묻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풀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600번, 700번, 800번 계속 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부흥 집회 갔을 때 어느 부흥강사가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10만 번 읽었다. 30만 번 읽었다. 3만 번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믿고서 나도 그렇게 읽어본다고 해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친구약 전체가 아니라 계시록만 읽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목사님 부흥 집회 갔을 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후에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있다더냐?”

“분명히 내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나도 그 소리 들었는데 계시록이래. 계시록을 감옥 가 있을 때 그렇게 읽어대. 계시록을 수만 번 읽었다고 내가 들었다.”

“아, 나는 성경 전체를 읽었다고 들었는데, 앞의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성경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23장에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했습니다. 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돕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면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압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보라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얻을 것이 있는가보다.” 했습니다.

선생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유익을 주어야 하는데 유익 줄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못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야야 뭘 돕지요.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돕습니까? 나는 맨날 하나님께 폐만 끼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

그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폐 끼친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폐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빛을 지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지 마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멀리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온 지구상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인생들을 살핀다.”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봄이 합당합니다.

어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임금을 처음 사귄 때는 밍니다. 그러나 가깝게 일도 많이 해 주고, 그 말도 들어 주고, 그리고 착실하게 일하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심복이 되기도 하고, 양자가 되기도 하고, 그로 아들을 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멀리 느끼고, 대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다 종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대해주고, 사람들도 종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까이 대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양자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예수님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보니까 결국 부자지간 관계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터전 위에서 시대도 되고 하니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하며 아들같이 2000년 동안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남같이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심부름 시키면서 종같이 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너무 친하니까 한 형제같이 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애인으로 대하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어떻습니까? 비유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멀었는데,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서 하늘과 하나가 돼서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시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애인이다. 내가 너를 애인으로 낳았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만 사람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사람이지요.

내가 세운 조건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지 적적했지, 산골짜기에 살았지, 친구도 없지, 사는 사람도 없지, 사람 사귀려고 하지도 않지, 바보라고 그러지 미쳤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인격적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심부름이나 시키면 심부름이나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 애인 시대에도 그렇게 순서를 거쳐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거쳐 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시고, 나아가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는 호랑이 짓밖에 못 합니다. 개는 개짓 밖에 못하고 사람은 사람 짓을 한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짓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메시아 짓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놈 짓을 못 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 짓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간판을 버리려고 사기 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아예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인이니까 성인 역할 밖에 못 합니다. 성자시니까 성자 역할만 하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대함을 받겠구나.’ 한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친구이고 선생이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가서 영계에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짝 가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심정도 알고, 마음도 알고 그렇게 살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예수님과 둘이 다녔습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했지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가다가 마음에 맞으면 같이 있고, 마음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섭리사도 마음에 맞은 사람들은 전부 섭리사 안에 살고,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다 섭리사 나갔습니다. 더 마음에 맞게 되면 가까이 살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살려면 내 심정에 맞아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미도 필요 없다. 몸짱도 필요 없다. 오직 나의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딱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인생들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 못 합니다. 나와도 동행 못 합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갖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해

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변하니깐.

“하나님도 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변하지. 하나님께서는 추풍낙엽처럼 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믿겠네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여름에는 신록의 계절 같고, 가을에는 역시 오색 단풍이 휘날리는 하나님이어서 화창하고 화려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옷도 입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을 되었는데 여름철 옷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가을같이 울긋불긋 맞추어야지요. 그리고 겨울 되면 겨울 옷 입고 다녀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러합니다.

“내 좋은 대로 하라. 니 좋은 대로 살지 마. 니 좋은 대로 1000년 살지 말고 내 좋은 대로 하루를 살아라. 그래야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자기 좋은 대로 천년을 살아도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하루라도 살아야 하늘나라에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섬리사 사람들이 장사합니까? 장사하면 손님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을 찾는가?’ 거기에 맞게 금방 해놓으면 그날 다 팔려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인생을 살면 그날 봉 뜯다는 것입니다. 팬텀기가 되고, 제트기가 됩니다.

손님은 자전거를 찾는데 리어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안 사가지요. 아무리 졸라도 안 사갑니다.

“이 리어카가 그렇게 좋다. 리어카 가지고 시장에 가면 잔뜩 싣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좋다.” 손님은 하이킹 하려고 자전거 사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인과 두 대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 나온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평생 보장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냥 고쳐줄게요. 이 리어카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해도 씨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리어카 바퀴를 떼어다가 자전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오십시오.” 하고서 리어카를 떼어서 자전거로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이치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안 듭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성격도 고치고, 행실도 고치고.

내가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매하러 왔습니다. 중매자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중매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 남

자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섭리사의 제자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나 오기 전에 선도 보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어? 그야 당연하지. 선도 봐야지. 이제 여기 왔으니까 섭리사의 축복식을 받고 해야지. 그런데 왜 켜느냐?” “아니,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서 왔는데요, 남자를 한번 보았습니다. 남자를 보니 다 좋은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물마시듯이 그냥 훌쩍훌쩍 마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혼해봤자 나도 이렇게 다루겠구나.’ 그래서 썩 돌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좋은 남자를 왜 켜느냐? 돈도 많고, 인물도 뽀뽀하고,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는데 왜 켜느냐?” 하고 밤새도록 조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데, 행실을 보니까 커피를 물마시듯 훌쩍 마셔버리고, 그리고 밥도 머슴 먹듯이 후다닥 먹어버리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대하겠구나.’ 생각하고서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것 못 봤어요? 그런 것 안 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요. 나는 그 짓 싫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그만큼 닦아졌으니까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닦아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사람 볼 줄을 압니다. 그 전에는 못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저 높을 못한다. 재는 노력 부족! 나를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선생님은 속에 있는 말은 안 합니다. 겉 얘기만 하지, 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속아도 나는 속 얘기를 안 한다.”

왜? 속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존재자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좋아하신다.”

선생님도 하늘 앞에 눈에 띄기까지는 진짜 노력입니다. 노력한 것입니다. 인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았습시다.

환경도 안 좋은데 다 완전히 밀어붙이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까짓것 여기다 만들자. 밀어붙이자.” 그러니까 어느 환경 못지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부 다 밀어붙이고 만든 것입니다.

대둔산을 보며 내가 원래 “대둔산같이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람차게 만들자고 그랬습시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라면 선생님을 닦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면서 나가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곳에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영광 돌리고 사는 것

이 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왜 우리의 목자가 되는가 하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것은 양이 목자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곳도 주시고, 쉴만한 환경도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쉼리사로 오게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마음이 편하게 해 주시고, 쉴만하게 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 준 것을 깨닫고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잘되고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새로 온 사람들에게 늘 정신과 모든 행실을 강하게 잡아서 나이는 어려도 정신 연령이 강해서 능히 다스려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삼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 안녕.